

다르게 살면 다르게 산다

민수기 20:2-5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여호와와 회중)인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민 20:4a) 하지만, 정체성을 아는 것만큼,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은 알았으나 그 정체성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도 틀린 삶을 사는 모습을 살펴보고, 바른 정체성과 바른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후회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후회’입니다. 1000명이 훨씬 넘는 암 환자들을 떠나보낸 호스피스 전문의인 오츠 슈이치 박사가 죽어가는 사람들로 부터 가장 많이 들은 단어는 후회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후회하고 있습니다.(민 20:3)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과거의 아픔이 다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인생의 굴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목상하고, 후회하며 돌아오지 않는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삶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과거가 상처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창 45:5)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창 50:20)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바꾸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후회나 상처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는 그 길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로 바꾸신 것이며, 온 세상 만민을 살리려 하시는 길로 바꾸신 것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 후회하는 대신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알았던 한 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대해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찾아갈 때마다 아주 예쁘게 단장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는 이제 곧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니 매일 예쁘게 꾸며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구원이 더 가까이 왔어요.” “제게 버킷 리스트가 있습니다. 예수님 땀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안구와 시신을 기증하겠다고 유서를 써 놓았어요, 그러니 예배는 한 번만 드려주세요.” 결코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며 여러 성도들과 함께 갔을 때 이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거에 연연하는 자가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기억하며 찬란한 미래를 목상하고 기다리며 사는 삶입니다.

2.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대해서는 후회를 하더니, 이제는 현실의 어려움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민 20:4) 이들은 광야라는 현실을 바라보고는 이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현실 속에서 다른 것을 듣고 다른 것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왕궁에서 도망 갈 때였습니다. 앞날을 알 수 없는 거친 광야 같은 피난길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사울 왕이 속해 있던 베나민 지파의 시므이란 사람이 다윗을 쫓아가며 저주하였습니다. 다윗왕의 군사들이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하였을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아의 아들들이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

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삼하 16:10)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삼하 16:12) 다윗은 원수의 말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이라는 혹독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광야라는 현실이 어렵습니까? 광야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좋은 자리입니다. 에스겔 33장 30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 보자” 광야의 현실 속에서 찬 비바람 소리, 사람들의 소리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를 격려하십시오. 지지하시기도 하시고, 교훈하시기도 합니다.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치료하시기도 합니다.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광야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광야는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니, 광야를 만났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찬 바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3.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대한 후회, 현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평하고 있습니다.(민 20:5)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애굽에서 구원하고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중인데, 하나님을 불신하며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노래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합 3:17-19) 그렇습니다.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그에게도 다 없는 것뿐이었지만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고 그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자기에게 없는 것도 있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 그 분 자신이 있음을 생각하며 기뻐하였습니다.

뇌성마비로 고생하는 송명희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없는 것 있지만, 그는 부유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소유의 기준을 물질에만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진정한 소유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의 가치가 전 부인 것 같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대한 후회로 살지 맙시다.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미래 천국을 바라보고 삽시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지 맙시다.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삽시다.
없음에 대한 불평으로 살지 맙시다.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감사로 삽시다.

○ 나눔의 시간 ○

1.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2. 우리가 후회 하지 않고 바라보아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3.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4. 없음에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